경주 황용사지서 신라 금동귀면 첫 발굴

불교문화재硏 9월 6일 발굴 현장 보고회서 발표

사례 찾기 힘든 금동귀면
석탑 옥개석 장식공예 추정
사명 '皇龍寺' 확인 瓦片도
"통일신라대 융성한 도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황용사지 금당지에서 출토된 금동귀면. 처음으로 발굴됐으며,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유물이다.


황용사(皇龍寺) 명문기와편. 문헌을 통해 전해졌던 황용사(黃龍寺)는 본래 사찰명이 아님이 확인됐다.

천년고도 경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황용동 소재 황용사지에서 신라시대 금동귀면이 발견됐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굴된 사례라 주목된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9월 6일 경주 황용동 소재 황용사지에서 1차 시·발굴조사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굴조사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 중인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경주 황용사지는 올해 2번째 조사였다.

황용사지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감포방면 동대봉산(옛 은점산) 절골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경주 구황동에 있는 황룡사지와는 다른 사찰이다.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 의하면 황용사는 선덕여왕 2년(633년)에 창건됐으며, 당시 명칭은 황둔사(黃芚寺)라고 불렸다. 이후 소성왕대에 황용사(黃龍寺)로 바뀌어 중창, 중수 등의 과정을 겪으며 사세를 유지해 왔다.

조사 전부터 황용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쌍탑을 비롯해 고려시대 승탑, 초석, 석축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정비·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시·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걸이가 있는 투조 금동귀면, 석불, 용두편, 하대석 편 등 사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물들을 발굴했다.

특히 금당지 동탑 기단 하단부에서 발견된 투조 금동귀면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는 유물로 주목을 받았다. 금동귀면의 크기는 15cm정도로 투조 기법으로 매우 입체감 있게 만들어졌다.

최인창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이번에 출토된 금동귀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사례"라면서 "석탑 부재 옥개석 모서리에 못 구멍이 확인되고 금동귀면 귀 하부에도 못이 있어 옥개석 장식으로만 추정할 뿐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8세기 쌍탑가람과 금동귀면 장식, 12지신 양각 불대좌하대석 등도 함께 출토돼 황용사가 통일신라시대 매우 융성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굴에서는 기존 문헌으로 알려진 '황용사(黃龍寺)'가 아닌 본래 사찰명이 '황용사(皇龍寺)'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기와편이 출토돼 눈길을 끌었다.

회암사지 출토 용두편과 유사한 용두편이 발견돼 조선시대에도 사격이 높았음이 추정된다는 게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이번 발굴조사에는 황용사의 가람 구조와 규모들도 확인됐다. 황용사는 계곡 주변에 크고 작은 석축 대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축조한 산지형 가람으로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5동, 탑지, 축대, 석렬 등 다양한 유구가 중복돼 출토됐다.

최 팀장은 "현재 쌍탑이 남아있는 구역의 경우 고려시대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고려시대에는 주변의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중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황용사의 사역이 현재 추정 사역보다 훨씬 넓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사찰 성격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를 추가로 얻는다면 통일신라 경주 지역 쌍탑 가람과 조선시대 경주 불교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 내몰지 않는 사회' 만듭시다"

생명존중시민회의, 9월 4일 생명주간 선포식서

"국민 개개인은 물론 정부와 기업, 학교,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모두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때입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이란 이 시대 아픔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생명주간으로 선포합니다."

하루 평균 36명, 연 평균 1만 3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3년째 자살률 1위국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공동대표 임삼진 박인주)는 9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 선포식'을 열고 자살 예방을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신일 前교육부총리 등 고문을 비롯,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이범수 부원장 등 각 종교계 대표자 및 시민 170여 명이 참석해 범국민 생명살림운동 실천을 약속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생명주간 선포, 1000인 선언문 낭독, 종교계 생명주간 활동계획 발표, 생명존중 서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주간을 전후로 9월 6일 롯데그룹의 생명존중 선포식, 7일 생명사랑 밤길걷기,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 11일부터 12일까지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등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가섭 스님은 이 자리서 불교계 대표로 생명주간 '2018 생명살림 대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의 자발예방사업 일환으로 전국 28곳 사찰서 6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생명살림 법회를 열고 불교적 생명존중·자살예방 대강좌 및 캠페인을 시행한다"며 "9월 1일 목우선원, 8일 포교사단 등 이미 시작한 곳도 있으며, 생명주간 첫 날인 9일부터 총 32회 법회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생명주간선포식에는 불교계 대표 가섭 스님(사진 앞열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시민사회 대표 170여 명이 참석했다.

가을 산문이 열리니 어깨춤이 들썩

전국 주요사찰 개산 맞아 문화축제 잇달아

개산 1600년 맞은 직지사
10월 12~14일 문화제전

통도사 1달여 간 문화축제
보석 관음보살 장엄 '눈길'
봉은사 등 문화 접목 행사

전국 주요 사찰이 개산(開山), 즉 창건한 시기는 대부분 9~11월에 몰려있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 사찰들은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해도 주요 사찰들은 개산을 맞아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개산 1600주년을 맞는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웅산)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다.

직지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개산 1600년을 맞아 '호국성사 사명당 문화제전'을 개최한다.

문화제전은 개산대재 법요식을 비롯해 △금자대장경 음악회 △호국성사 사명당 추모 세미나 △금자대장경 사경대회 △사명대사 '나라사랑' 학조대사 '한글사랑' 백일장 및 직지신인문학상 공모 △직지사 1600년에 대한 기록전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이와 함께 직지사는 사명 성사의 나라 사랑과 학조 대사의 나랏말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백일장을 개최한다. 또 故 녹원대종사가 제정해 한국문학의 중흥을 견인한 녹원문학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직지신인문학상도 공모한다.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뜻을 기념하는 '1373주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장 한달여 간 개최한다. 매년 색다른 기획으로 불교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통도사는 올해 특별 전시로 비즈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한 관세음보살을 제작했다. 아울러 불교 조각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이영섭 작가의 '부처님과 어린왕자' 전을 열어 천진불의 세계로 초대한다.

괘불 조성체험도 눈길을 끈다. 고려불화 수월관세음을 모티브로 제작한 대형 그림에 비즈로 화려하게 장엄하는 행사로 통도사는 6월 21일부터 체험을 시작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불이문 앞에서 전시된다.

아울러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개산대재 기념 괘불탱화전을 열어 시민과 함께 한다. 괘불탱화전은 10월 9일 시작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개산 1340주년을 기념하는 법요식을 10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에서 봉행한다. 매년 범어사는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팔관회와 함께 개산대재를 기념했으나 올해는 따로 진행해 개산조 의상대사가 화엄십찰로 창건한 범어사 개산 의미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어사는 1부 개산조에 차를 올리는 헌다와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주지 스님 인사말과 방장 지유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진다. 2부에서는 화엄의 뜻을 강조하며 함께 공양을 나누는 '호국발원 천인공양 비빔밥 나누기'를 진행한다. 비빔밥을 담은 대형 가마솥을 마련해 주지 스님과 산중 대중 스님들이 시민에게 공양을 나누고 화합의 뜻을 담는다.

서울 강남 포교 1번지 봉은사(주지 원명)은 개산 1224년을 맞아 개산대재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개산대재 행사는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다례재로 시작을 알리며 전국 찻거리 경연대회, 행복나눔바자회, 정대불사, K-POP 가을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생전예수재 회향과 수륙대재는 봉은사 개산대재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신성민, 하성미 기자

천태종, 라오스 댐 붕괴 이재민에 구호품

3억여 원 상당 물품 주한 라오스 대사에



천태종과 종단 산하단체 (사)나누며하나되기가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 주(Attapeu province)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로 발생한 이재민에게 3억여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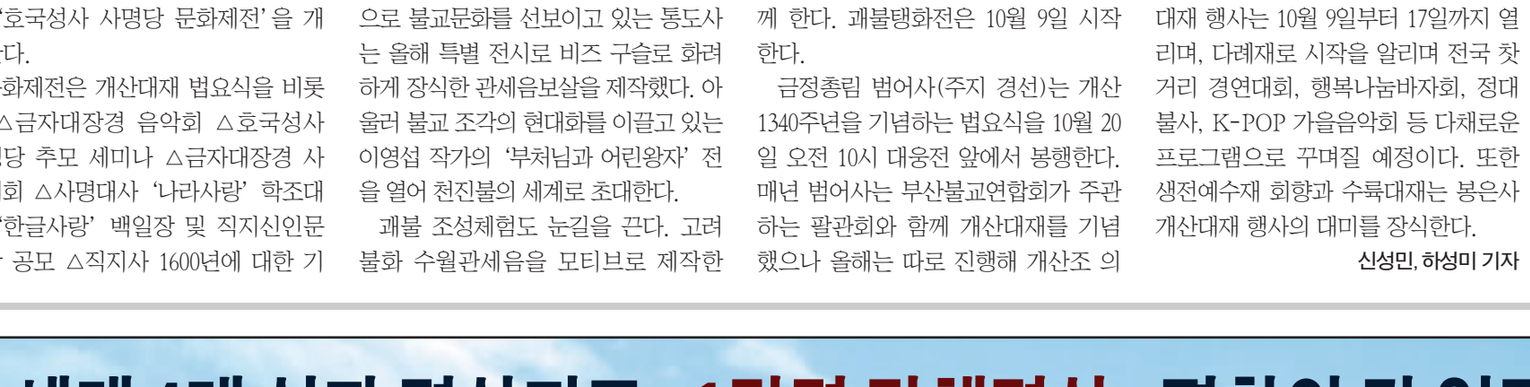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9월 4일 서울 관문사서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에게 3억3000여만원(약 30만 달러) 상당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문덕 스님은 "이번 구호물품은 전국 250만 천태종도들이 고통 받고 있는 라오스 주민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할 것"이라며 "이 물품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하루속히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덕 스님은 이어 "라오스는 오랜 불교국가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다. 한국 불자들도 라오스의 불교 전통을 존경하고 있다"며 "라오스 불자들과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하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캄쑤와이 대사는 "천태종에서 보낸 구호물품이 현지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라오스 정부도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 교무부장 경혜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덕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 4대 성자 명상지도 · 1만명 단체명상 · 평화의 강 임진강으로
세계평화명상대전 검색
DMZ 세계평화명상대전 & 힐링캠프

심도 대선사 (대만 대표 선승)
아잔 브람 (세계적 명상스승)
아잔 간하 (태국불교의 전설, 아라한)
혜국 대선사 (간화선 대종사)
각산 선사 (세계명상수행승)
일 시: 10월 13일(토) 오전 10시
장 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인 원: 10,000명 사전접수 필수
*DMZ 걷기명상은 선착순 2,000명 접수
참가비: 무료 부대비용 9천원 별도
문 의: 02-451-0203 · 1577-3696
주 최: 한국참선지도자협회
BBS 불교방송 불교신문
3박4일 특별 집중수행 병행
일시 10월13일(토)~16일(화)
장소 하이원리조트 인원 1,000 명